

##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정숙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The Effect of Menopausal Symptoms & Self Esteem on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

Jeong-Suk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aekyu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개 지역 D와 S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목적, 과정에 설명을 하고 동의한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분산분석, t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중년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주관적 경제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갱년기증상( $\beta=.409, p<.001$ ), 자아존중감( $\beta=-.368, p<.001$ ), 건강상태( $\beta=-.094, p=.174$ ), 경제상태( $\beta=.067, p=.353$ )순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과 우울정도를 확인하여 갱년기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전환기로 받아들이고 갱년기 여성의 사회정책, 간호정책개발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갱년기증상, 우울, 중년여성, 자아존중감, 주관적건강상태

**Abstract** The study was investigate the effect of Climacteric Symptom and Self Esteem on depression in middle woman. A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25 D & S city middle aged womans from January to February 2019. data was analyzed using SPSS/WIN 21.0. In additi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wom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instability. The variables affecting depression are Climacteric Symptom( $\beta=.409, p<.001$ ), Self Esteem( $\beta=-.368, p<.001$ ), economic status( $\beta=.067, p=.353$ ), health status( $\beta=-.094, p=.174$ ). It should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nursing policy for menopausal women by confirming the symptoms of menopausal symptoms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and accepting menopausal period as a turning point of natural life.

**Key Words** : Climacteric Symptom, Depression, Middle aged woman, Self Esteem, Subjective Health Status

\*Corresponding Author : Jeong-Suk Kim (nursekim0305@hanmail.ne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의 중년기는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중년여성은 인생의 전환점으로 체력 저하, 생리주기의 불안정으로 인한 초조감, 업무능력 저하, 죽음과 노화에 대한 불안감 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1]. 중년 여성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역할변화, 갱년기 증상,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은퇴 등 심리적인 증상으로 우울을 경험하며 우울로 인하여 소외감, 열등감, 허무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 우리나라는 폐경연령을 45세에서 55세로 보며, 폐경연령의 평균은 50-51세로서 이 연령을 중심으로 갱년기증상이 시작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0세 이상에서 59세까지의 여성을 중년 여성이라 한다[3]. 중년여성의 갱년기는 생식 생리의 변화를 겪으면서 고독을 느낀다. 또한 신경과민,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37% 이상이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며 주요증상은 요통, 팔다리 쭉심, 관절통, 두통, 피로 등이며 갱년기 증상이 많을수록 우울증상이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다[4]. 자아존중감이 자아개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미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의미라고 하였다[5]. 갱년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역할 기능 결과를 자녀와 남편의 성공에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 남편, 자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성자신의 역할기능 부족으로 돌려 우울, 죄책감을 갖는다고 보고 하였다[6].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갱년기 증상의 관계를 파악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중년여성의 폐경으로 인한 임신능력 상실, 여성다움의 상실로 오는 절망감, 폐경후후군으로 오는 불편감은 갱년기의 우울감을 초래 할 수 있다[7]. 따라서 갱년기 증상과 우울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술치료, 향기흡입요법, 종교적 성향을 변수로 하여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등을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유사실험연구인 비동등성대조군 사후설계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사후조사에서 얻은 우울 결과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서술적 조사연구를 하여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간호중재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복합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갱년기증상, 자아존중감, 우울감 정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들의 주문제인 갱년기증상과 자아존중감, 우울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주요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장에 대하여 교육하였고 이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D, S지역에 거주하는 40-59세 사이의 중년여성을 임의로 추출하여 2019년 1월부터 2월 까지 실시하였다. 총 135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자료 10부를 제외하고 125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최근 4주에서 5주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대상자수는 코헨 방식 효과크기  $R^2$ 는 .13 중간크기로 하여 계산한 결과  $r=0.15$ 로 나왔다. 검정력 .80으로 할 경우 척도 3가지로 계산한 결과 표본 수는 75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25명의 설문을 하였으므로 표본크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2.3 연구도구

#### 2.3.1 갱년기 증상

갱년기 증상 측정도구는 Sarrel[9]이 개발한 폐경기

증상요인 Menopause Symptom Index(MENSI)을 [10]이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보완한 20문항과 심리적 증상에 관한 3문항을 보완하여 [11]의 연구에서 사용한 2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육체, 심리정서, 성기능 증상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육체적 증상 12문항, 심리, 정서적 증상 7문항, 성기능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없다'가 0점, '가끔이' 1점, '자주'가 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2$ 로 나타났다.

### 2.3.2 자아존중감

Rosenberg[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총 10개의 문항으로 긍정과 부정 각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부정문항 5개는 역환산하였다.

문항별 내용은 거의 '그렇지 않다'가 1점에서 '정말 그렇다'가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뜻한다. 도구 개발당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2.3.3 우울

Radloff[12]가 개발한 도구를 Gu[13]가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20문항의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감 7문항, 긍정적 정서 4문항, 육체적 문제 7문항, 대인관계 2문항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우울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드물게(1일 이하)' 0점, '보통(1-2일)'이 1점, '자주(3-4일)'가 2점, '매우 자주(5-7일)'가 3점에 응답을 하였다. 긍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5$ , [13] 연구에서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갱년기증상, 자아존중감,

우울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갱년기증상, 자아존중감, 우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Table 1을 보면 연령은 40대가 38.4%, 50대는 61.6%, 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 4.0%, 고졸은 34.4%, 대졸 61.6%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8.0%, 기혼이 92.0%였다. 직업은 『유』집단이 67.2%, 『무』집단이 32.8%였다. 자녀수는 없다가 8.0%, 1-2명이 43.2%, 2명 이상이 48.8%였다. 지각된 경제수준은 높다가 31.2%, 보통이 44.8%, 낮다가 24.0%, 지각된 건강상태는 매우 여유롭다가 24.0%, 보통이 46.4%, 나쁘다가 29.6%,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는 군은 32.0%, 불규칙군은 20.0%, 폐경 군이 48.0%, 유산횟수는 없다가 76.0%, 1회가 16.0%, 2회이상은 8.0%, 초경연령은 12-14세가 84.0%, 15-17세가 16.0%였다. 스트레스가 없다면은 28.0%, 약간 28.0%, 많은 군은 44.0%, 흡연하는 군은 31.2%, 비흡연군은 68.8%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5)

Variable	Division	N	%
Age(years)	40-49	48	38.4
	50-59	77	61.6
Education	middle	5	4.0
	high	43	34.4
	university	77	61.6
Marital status	yes	115	92.0
	no	10	8.0
Children	no	10	8.0
	one-two	54	43.2
	two more	61	48.8
Job	Yes	84	67.2
	No	41	32.8
Subjective Economic level	very relaxed	39	31.2
	relaxed	56	44.8
	lack	30	24.0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30	24.0
	moderate	58	46.4
	bad	37	29.6
Menstruation	regular	40	32.0
	irregular	25	20.0
	menopause	60	48.0
Abortion Time	no	95	76.0
	one	20	16.0
	two more	10	8.0
Menarche (years)	12-14	105	84.0
	15-17	20	16.0
Stress	no	35	28.0
	mild	35	28.0
	many	55	44.0
Smoking	yes	39	31.2
	no	86	68.8

3.2. 갱년기증상, 자아존중감, 우울정도

Table 2를 보면 갱년기 평균점수는 1.32점, 우울은 2.32, 자아존중감은 3.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Climacteric, Self Esteem, Depression

Variable	M±SD	Range Score
Climacteric Symptom	1.32±1.05	0-2
Self Esteem	3.00±1.64	1-4
Depression	2.32±.25	0-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Table 3.에서 연령, 교육, 결혼상태, 자녀수, 직업, 생리, 유산횟수, 초경연령, 스트레스, 흡연여부는 우울과 차이가 없었다.

Table 3. Difference of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	M±SD	t or F	p
Age (year)	40s	2.47±.75	1.467	.075
	50s	2.52±.61		
Education	middle	2.51±.63	0.764	.853
	high	2.10±.59		
	university	2.25±.65		

Marital Status	yes	2.28±.85	0.728	.623
	no	2.65±.82		
Children	no	2.14±.78	2.132	.125
	one-two	2.26±.77		
	two more	2.74±.81		
Job	yes	2.63±.83	0.626	.580
	no	2.24±.84		
Subjective Economic level	very <sup>a</sup> relaxed	2.55±.85	2.568	a(b,c) .002
	relaxed <sup>b</sup>	2.74±.83		
	lack <sup>c</sup>	2.25±.85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sup>a</sup>	2.25±.85	0.842	a(b,c,d) .001
	moderate <sup>b</sup>	2.02±.78		
	bad <sup>c</sup>	1.59±.68		
Menstruation	regular	2.32±.87	1.472	1.325
	irregular	2.52±.86		
	menopause	1.78±.78		
Abortion Time	no	2.30±.65	2.212	.753
	one	2.12±.74		
	two more	1.95±.85		
Menarche (years)	12-14	1.98±.21	1.721	.533
	15-17	2.12±.36		
Stress	no	2.12±.58	0.679	.458
	mild	2.32±.64		
	many	2.41±.74		
Smoking	yes	2.23±.55	0.628	.652
	no	2.55±.62		

3.4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갱년기증상은 자아존중감(r=-.302 p<.01), 우울(r=.549, p<.01)과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r=-.520,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25)

Variable	Climacteric Symptom	Self Esteem	Depression
Climacteric Symptom	1	-.302** (.000)	.549** (.000)
Self Esteem	-.302** (.001)	1	-.520** (.000)
Depression	0.549** (.000)	-.520** (.000)	1

\*\*p<.01

3.5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Table 5는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경제상태와 건강상태를 더미변수로 변환하고, 갱년기증상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 $F=23.273$   $p<.001$ ) 설명력은 43.7%였다. 우울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갱년기증상( $\beta=.409$   $p<.001$ ), 자아존중감( $\beta=-.368$ ,  $p<.001$ ), 경제상태( $\beta=.067$   $p=.353$ ), 건강상태( $\beta=-.094$   $p=.174$ )순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 Watson 값은 1.857로 잔차들 서로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차한계는 0.526-0.865로, 분산팽창인자는 1.158-2.15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fluencing factor for depression (N=125)**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s	1.141	.345		3.303	.001
Subjective Economic Status	.045	.102	.067	.441	.353
Subjective Health status	0.136	.100	-.094	1.360	.174
Climacteric Symptom	.565	.101	.409	5.603	.000***
Self Esteem	-.250	.050	-.368	-4.977	.000***
Adjusted R <sup>2</sup> = 0.437 F=23.273 p=.000***					

\*\*\* $p<.001$

#### 4. 논 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중년여성의 우울증재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자아존중감과 역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14].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갱년기 여성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와 방어를 할 수 있고 개인적 대처능력이 탁월하여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 삶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구체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갱년기증상과 우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5]. 이는 중년여성의 우울이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은 높은 것으로 즉,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우울은 중년여성의 중요한 건강문제로서 우리사회는 여성대회, 여성의 날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담당지자체 공무원과 민, 관이 함께 대책마련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신체적, 정신적 증상, 우울과 관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적절한 간호중재를 하지 않으면 우울이 심각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여성의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갱년기를 보낼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정도는 지각된 경제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갱년기 증상호소가 높았다고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16].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여성은 가정외의 생활을 재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취업과 여가활동이 갱년기를 쉽게 보낼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한 보고를 지지하였다[15.17]. 월평균 소득이 적을 경우 경제수준이 낮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고도의 스트레스는 우울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흡연은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폐경의 영향요인은 흡연기간과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경이 앞당겨진다는 기존 선행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7]. 중년여성의 흡연은 근육량 감소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폐경기 이후는 더 심각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높을 때 갱년기 증상 호소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 때 갱년기 증상 호소율이 높았다는 연구와 일치하였고[18], 스트레스가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난포 자극호르몬과 황체자극호르몬 분비증가로 갱년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19]. 중년여성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교육 및 건강관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20-21]. 이는 주관적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영양관리, 수면상태, 위생관리, 자아실현에 대한 노력, 대인관계관리 정도가 높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22].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중년여성의 우울 증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간호중재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2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에 대하여 연구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일반화된 결론의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중년 여성에 대해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지로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한계가 있어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제안한다. 중년 여성들의 우울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청소년, 성인기 초기 여성, 노인여성에 비하여 중년기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관심이 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주요 변인들을 조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1] S. J. Kim & S. Y. Kim.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arital Intimacy, Depression, and Menopaus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an Health Nursing*, 19(3), 176-187.

[2] K. S. Choi, H. E. OH & C. S. Shin.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cteric Symptom, Depression and Coping among Middle-Aged Women. *Korean Society for R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3(3), 125-135.

[3] M. K. Kim. (2003). *Effects of aromatherapy on depressed stress menopaus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Master's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4] S. N. Kang.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Climacteric Symptom,*

*Depression of the Middle-Aged Women in Local Church*. Master's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 [5]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American, Princeton city,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6] J. H. Kim. (2002).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Menopausal Disorders and Their Treatment*. Master's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 [7] M. H. Sung. (2002). Self reported Climacteric Symptoms, Self Concept and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an.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14(1), 102.
- [8] P. Kim. (2005).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Art Therapy to Middle-aged Women's Attitudes toward Middle Adulthood Developmental Changes and Their Self-reported Climacteric Symptoms*. Maste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9] P. M. Sarrel. (1995).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ostmenopausal patients. *Female Pt*, 20(2), 27-32.
- [10] H. S. Joo & K. Z. Lee .(2001). A Comparative Study on Climacteric Symptoms of Natural Menopausal Women and Artificial Menopausal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4), 672-702.
- [11] S. H. Han. (2004). *A Study on the menopausal symptoms, menopausal managementand quality of life in middle aged women*. Master's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 [12]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13] G. G. Gu, S. J. Choi & B. C. Yang. (2001). Development an integrated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1), 85-97.
- [14] Y. Y. Bang. (2019). Convergence analysis of Depression managing Program for Menopausal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4), 257-264. DOI : 10.15207/JKCS.2019.10.4.257
- [15] N. H. Joo & C. H. Seong. (2016). Effects of Stress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and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89-97. DOI : 10.15207/JKCS.2016.7.6.089.

- [16] S. G. Back. (2016). Effects of Using Convergence Circuit Weight Training on the Blood Lipids and Oxygen-carrying Factors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267-274.  
DOI : 10.15207/JKCS. 2016.7.6.267.
- [17] G. Y. Kim. (2019). *The Effects of Climacteric symptoms and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Middle-age Women*. Master's dissertation Aju University. Suwon.
- [18] M. N. Park. (2019). *Menopausal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between chemotherapy-induced menopause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natural menopause women without cancer*. Master's dissertation Aju University. Suwon.
- [19] L. H. Kim. (2019). *The effects of adult recreational ballet art education on menopausal syndrome and middle-aged women*. Master's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 [20] H. S. Kim & S. S. Kim. (2017). A Converged Study about Influences of Job Stress, Job Security, Depression, Family Bond, Subjective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Married Middle-Aged ma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101-114.  
DOI : 10.15207/JKCS.2017.8.3.101.
- [21] M. S. Kang. (2008). *Work and Family Stressor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Middle-aged Married Men in Korea. Korean*. Master's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Busan.
- [22] L. K. McNall & J. T. Galeener. (1978). *Current practice in Obsteric and Gynecologic Nursing*. Saint Louis : C. V. Mosby Co.

김 정 숙(Jeong-Suk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건강증진, 정신건강, 보건학
- E-Mail : nursekim0305@hanmail.net